

<http://doi.org/10.5253/kpac.2026.57.3>

석북 신광수의 『탐라록』 연구*

- 그 여정(旅程)과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윤세순**

차례

1. 들어가며
2. 제주로 향하는 길에서
3. 제주에 머물던 40여 일 동안
4. 제주를 떠나 한양 도착까지
5. 나오며

| 국문초록 |

본고는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탐라록(耽羅錄)』을 통해 그의 제주 여정(旅程)과 그 여정에서 드러난 심리 상태를 연구해 보았다. 석북은 1764년(영조 40) 1월 16일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로서 일행과 함께 죄인을 호송(護送)하는 임무를 띠고 제주로 향하였고, 바다를 건너 1월 26일 제주에 들어갔다. 임무를 마치고 다음날 제주를 출발하였는데, 폭풍우를 만나 발이 묶여 40여 일 동안 제주에 체류하게 되었다. 『탐라록』 소재(所載)의 시들은 시간상으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제주로 향해갈 때,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를 떠나 육지로 향해갈 때의 여정이다.

석북은 제주로 떠나기 전날 밤에 항해(航海)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초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임금과 나라의 위령(威靈)에 힘입어 순항(順航)하길 기원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순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5-CDM-1230001)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풍(順風)을 맞으며 순항하게 되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제주에서의 일들을 상상하며 즐거워하였다. 반면 폭풍우 때문에 발이 묶여 제주에 체류하는 40여 일 동안은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무료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상당수의 시를 지었다. 이들 시 속에서 석복의 다양한 모습, 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초월적인 힘에 의지해보려는 나약한 모습,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 가난한 백성에 대한 연민, 제주에 대한 이중적인 마음 등을 엿볼 수 있었다. 바람이 잠잠해지자 석복 일행은 3월 13일 제주를 출발하여 15일 육지에 이르렀고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석복은 출발하는 배에 올라서자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흥분함을 느꼈고, 추자도까지 순항하면서 세찬 바람도 다정하게 느꼈다. 하지만 항해 도중 달이 지고 안개가 자욱해지자 닻을 내리고 바다에 머물렀다. 풍랑을 겪어봤던 석복 일행은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와 밤을 지새웠다. 구름 낀 바다에서 3일 간이나 머물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육지에 무사히 당도하였다. 석복의 『탐라록』은 한 인간이 고난 전과 후에 느끼는 심리 상태를 담고 있는데, 두려움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마음을 추슬러 나갔는지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석복(石北), 신광수(申光洙), 『탐라록(耽羅錄)』, 제주로 항해갈 때,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육지로 항해갈 때

1. 들어가며

석복 신광수는 52살 때인 1764년(영조 40) 1월 16일에 금오랑(金吾郎)¹⁾으로서 동료 관원 이익(李翼), 서리(書吏) 박수희(朴壽喜)와 함께 죄인을 호송(護送)하는 임무를 띠고 제주로 향하였고, 바다를 건너 1월 26일 제주에 도착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이튿날 제주를 출발하였는데, 폭풍우를 만나 발이 묶였고, 이후 몇 차례나 출항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40여 일 동안이나 제주에 체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석복은 목민관도 유배인도 단순 방문인도, 제주 본토인도 아니고, 봉명(奉命)하여 잠시 제주에 파견된 관인(官人)이었다. 이 때문에 필자

1) 금오랑(金吾郎)은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의 별칭(別稱)이다.

는 석북의 『탐라록(耽羅錄)』이 제주 관련 여타 인물들의 작품과는 변별되는 특별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 또한 석북은 ‘관서별곡(關西別曲)’과 ‘관산용마(關山戎馬)’를 지은 시인으로서 18세기 중엽에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런 석북이 제주 여정에서 지은 시들은 어떠한지 궁금하였다.

먼저 석북의 『탐라록』에 대한 선행(先行) 연구를 파악해 보면, 윤경수·부영근·박용만의 논문이 있다. 윤경수는 석북의 『탐라록』에 내륙과 다른 제주의 다양한 특색이 내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 모습을 풍속지적(風俗志的)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오·칠언 시에서는 제주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토속을 담고 있는 작품을 분석하였다. 고체시(古體詩)로는 <잠녀가(潛女歌)>에서 제주 해녀의 생활상 등을, <한라산가(漢拏山歌)>에서는 삼신산(三神山)이라 일컫는 한라산의 신화와 전설에 대해 살펴보았다.³⁾ 부영근은, 석북이 민풍(民風)을 반영한 사실 지향적 문학 의식을 지녔다고 밝혔고, 작가로서의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석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탐라록』에 나타난 석북의 풍류의식(風流意識), 관료의식(官僚意識), 애민의식(愛民意識)을 포착하여 『탐라록』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⁴⁾ 박용만은, 석북

2) 제주 관련 문학작품이나 문헌 기록을 남긴 인물들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① 제주 부임 목민관 및 그 보좌인, ②제주 유배인, ③제주 출신 문인, ④제주 방문 문인, ⑤ 제주 미방문 문인이다. 그런데 석북은 이 다섯 부류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인물이다. 제주에 부임한 관료의 경우 목민관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따라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시문, 특히 시 작품을 많이 남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석북 일행은 제주에 체류하면서 오직 순풍이 불어 출항할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는 일이 없어 무료하여 시를 짓기도 하고, 울적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시를 짓기도 하였다. 석북도 『탐라록』 「자서(自序)」에서 “옛사람은 사명을 받들어 사방으로 가서는 반드시 시를 지어 그곳의 산천, 풍속, 어조(魚鳥), 초목의 형상을 기술하여 그 행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두 타관에서 벼슬살이하면서 경물에 마음을 두어 시편에 그려내는 일은, 그 마음과 눈을 유쾌하게 하기에 충분한 점이 있었다. 반면에 우리 두 사람의 이른바 『탐라록』으로 말하자면, 이것과는 다르다. [古人奉使四方, 必有詩述其山川, 謠俗, 禽魚, 草木之狀, 以識其行. 然皆宦遊所至, 留連景物, 鋪張篇什, 有足以愉快其心目者矣. 若吾二人者之所謂耽羅錄, 則異是夫]”라고 하였다.

3) 윤경수, 「申石北의 『耽羅錄』考」, 『成大文學』 23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4) 부영근,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考察」, 『영주어문』 8집, 영주어문학회, 2004.

의 『탐라록』은 그의 제주에 대한 인식과 18세기 문학을 바라보는 중요한 기록이라 전제하였다. 먼저 『탐라록』 앞부분에 수록된 동료 관원 이익(李瀾)·목만중(睦萬中)·정범조(丁範祖)의 서문, 그리고 신광수 자신이 직접 쓴 서문을 통해 18세기 문인들의 제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후 『탐라록』에 수록된 시문의 정서(情緒)를 이국적 풍물에 대한 소회(所懷), 관료로서의 사명감, 백성의 삶에 대한 사실적 표현과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였다.⁵⁾

지금까지 『탐라록』 연구는 주로 제주의 승경과 풍속, 그리고 제주에 대한 석복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시각을 달리하여 『탐라록』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려 한다. 석복은 제주 여정(旅程) 속에서 읊조린 다양한 시체(詩體)의 작품들을 『탐라록』⁶⁾이라는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 놓았는데, 『탐라록』에는 4편의 서문(序文)과 58제(題) 95수(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시들은 시간상으로 크게 세 부류, 즉 제주로 향해갈 때,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를 떠나 육지로 향하는 여정에서 읊조린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 시간상의 흐름에 따른 석복의 심리 상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⁷⁾ 『탐라록』에 수록된 시들을 소재나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셋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려는 이유는 제주로 향해갈 때,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제주를 떠나 육지로 향할 때의 여정(旅程)에서 석복의 심리 상태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석복은 폭풍우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40여 일 동안이나 제주에 고립되어 강제로 체류하게 되면서 마음이 극도로 예민해져 정서가 안정적이지 못하였고, 머릿속이 복잡다단해져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하였다.

5) 박용만, 「申光洙의 『耽羅錄』에 나타난 제주에 대한 인식과 정서」, 『탐라문화』 66호, 탐라문화연구원, 2021.

6) 석복 집안에 전하는 필사본에는 ‘부해록(浮海錄)’이라 되어 있다.

7) 석복의 『탐라록』은 뒷부분에 수록된 <한라산가(漢拿山歌)>, <제주길자(濟州乞者歌)>, <잠녀가(潛女歌)>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간 순서상으로 작품이 배치되어 있다.

2. 제주로 향하는 길에서

석복은 의금부 도사로서 왕명을 받고 죄인을 호송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제주로 향하였다. 이 때문에 석복은 일행과 함께 한양에서 밤낮으로 역마를 타고 달려 사흘 만나질 만에 해남(海南)에 도착하였다.⁸⁾ 이를 통해 석복의 임무가 속도감 있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⁹⁾ 그리고 해남에서 나흘 동안 묵으면서 순풍(順風)을 기다리다가, 고달도(古達島)에서 배에 올라 만나질 만에 제주에 들어갔다.¹⁰⁾ 석복은 해남에 도착해서 곧장 나루터로 가서 제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순풍이 불 때까지 해남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육지가 끝나고 망망대해가 펼쳐지는 망끝 지역에서 석복은 어떤 심정이었고, 또 순풍을 타고 제주로 향할 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관련 시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탐라록』에서 제주로 향하면서 지은 시는 앞부분에 수록된 8제(題) 10편, 즉 <해월루(海月樓)> 2편, <등주(登舟)> 2편, <향소안도(向蘇安島)>, <숙소안도(宿蘇安島)>, <발소안도(發蘇安)>, <출백도(出白道)>, <지반양망한라산(至半洋望漢挈山)>, <대양주중(大洋舟中)>이다.

『탐라록』의 맨 첫 번째 시는 <해월루(海月樓)> 2수(首)인데, 첫 번째 시는 오언율시, 두 번째 시는 칠언율시이다.

(첫 번째 시)

만 리 길의 하원사	萬里河源使,
삼경에 해월루에 올랐다네.	三更海月樓.
구름 속 돛배는 주렴 내린 채 머물러 있고	雲帆宿簾箔,

8) 吾二人者, 以金吾郎奉命, 拿罪人, 晝夜馳驅, 三日半到海南. (『耽羅錄』 「自序」)

9) 김상헌은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按撫御史)로서 제주에 파견되었는데, 한양에서 강진까지 보름 정도의 기일을 소요하였다. (『南槎錄』 참고) 이것과 비교해 보면, 석복 일행은 한양에서 해남까지 3일 만나질만 소요하였으니, 그 임무가 매우 급박했음을 알 수 있다.

10) 留四日候風, 自古達島登舟, 半日入濟州. (『耽羅錄』 「自序」)

신선 길은 영주로 이어졌네.	仙路接瀛洲.
천지 사이에 내 몸 왜소한데	天地吾身小,
허공엔 밤의 맑은 기운 떠다니네.	虛空夜氣浮.
한참을 멍하니 뉘 놓고 난간에 기대있는데,	憑欄久自失,
내일이면 외론 배에 오르리라.	明日上孤舟.

(두 번째 시)

망루의 피리와 북소리 밤 깊도록 들려오는데	戍樓笳鼓夜深聽,
남쪽 바라보니 하늘에 닿은 만 리 바다로다.	南望浮天萬里溟
사자는 내일 아침 나뭇잎 같은 신세일 테니	使者明朝身似葉,
탐라는 예부터 부평초 같은 섬나라였네.	耽羅終古國如萍.
서불의 배 안에 달빛 오래 머무르고	長留徐市舟中月,
전횡도 위에는 별들 쏟아져 내리려 하네.	欲下田橫島上星.
먼 변경에서 감히 본디 충신하다 말할 수 있으랴만	蠻貊敢言忠信素,
성상의 위령(威靈)에 힘입어 기진 물결도 순조롭게 가리라.	鱗波利涉賴君靈.

석북은 제주를 향해 출발하기 전날 밤에 만 리 뱃길을 떠나려 하니 마음이 착잡하고 심란하여 한밤중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였다. 이에 밖으로 나와 해월루¹¹⁾에 올라서 난간에 기대 채 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칠후 같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가야 할 바닷길을 만리(萬里)라는 과장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제주로 향하는 길이 녹록하지 않고, 제주 섬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곳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한참을 멍하니 뉘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11) 해월루(海月樓)는 현재 해남군 북평면에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영암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당시 영암군에서는 제주를 왕래하는 사객(使客)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남창(南倉)을 짓고, 바람을 기다리는 장소로 해월루를 제공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영암군(靈巖郡) 편 누정(樓亭)에 따르면, 해월루는 이진(梨津)의 남쪽에 있는데, 제주도로 가는 자는 여기서 배를 타며, 소안도(所安島)에서 바람을 살린다고 한다. 또한 1872년에 제작된 지방지도 영암군 군지도에 이진(梨津)의 진석성(鎭石城)과 달량진성(達梁鎭城)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 해월루는 달량진성 안에 2층 누각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공 <영암군 군지도> 참고)

석북은 당시 천지 사이에 있는 자신이 왜소하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캄캄한 밤에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해진 석북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또한 내일이면 외로운 배를 타고 떠날 자신을 나뭇잎 같은 신세라고 하였다. 나뭇잎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움직이는 신세이니, 배를 타고 가는 자신의 생사(生死)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萬里’, ‘久自失’, ‘吾身小’, ‘孤舟’, ‘身似葉’ 등의 시어(詩語)는 1월 하순 한밤중의 차가운 바닷가 공기와 어우러지면서 외롭고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한껏 위축된 석북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의 경구(頸句)에서 시상(詩想)의 전환이 일어난다. 진시황 때 불로초를 찾기 위해 제주에 왔다고 전해지는 서불처럼 제주로 향하는 석북 일행이 탄 배에 달빛이 환히 비춘다면 밤바다를 노 저어 가도 무섭지 않을 것이고, 쏟아질 듯한 별들이 무수히 보이는 맑은 밤바다라면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할 수 있어 무사히 제주에 도착할 것이다. 게다가 성상의 위령(威靈)까지 석북 일행이 탄 배를 보호해 준다면, 모진 풍파라도 충분히 감당하여 순항(順航)할 것이라 믿었다. 내일이면 망망대해를 향해 출발해야 하는 두려운 마음을 달빛과 별빛에게 위로받았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충성스럽고 미더운 신하는 아니지만 임금의 보우하심까지 기대하면서 안도감을 가졌다.

(첫 번째 시)

신하가 하직 인사 드린 뒤	臣自辭朝後,
도성에서 제주로 나아가네.	都門卽濟州.
이 한 몸 이제 나라에 맡기고	一身今許國,
만 리 길 비로소 배에 올랐네.	萬里始登舟.
바다 풍광은 꺾은 비 개었으니	海色開陰雨,
임금 은혜로 장유하게 되었네.	君恩得壯遊.
푸른 도포 입고 배의 망대에 있으니	靑袍柁樓上,
백 년 인생 덧없음 비로소 믿게 되었네.	方信百年浮.

(두 번째 시)

홍화문 앞에서 한 필의 말에 올라	興化門前登一騎,
채찍 휘두르며 사흘 만에 남해 이르렀네.	揚鞭三日到南溟
감히 늙고 병들었다 하여 나랏일 마다하라	敢將衰病辭王事,
이후로 풍파는 나라의 영기(靈氣)에 의지하리.	此去風波仗國靈
바다 밖의 산엔 완마의 터전 열렸고	海外山開宛馬窟,
하늘가로 가는 뗏목 노인성에 다가가네.	天邊槎犯老人星.
그대들과 노년에 이처럼 장쾌한 유람하게 됐으니	與君頭白茲游壯,
누선 타고 동정호 지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네.	全勝樓船過洞庭

석복은 이튿날 배에 올라 <등주(登舟)>라는 제목으로 오언율시와 칠언율시 각각 1편씩을 지었다. 제주로 향하는 배안에서 석복은 지난 십여 일간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았다. 왕명을 받고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고하여 홍화문 앞에서 말을 타고 도성을 빠져나와 해남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고, 영암의 달랑진성에서 사흘 동안 순풍을 기다렸다. 이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를 읊조리는 지금은 맑은 날씨에 순풍을 맞으며 유유히 제주로 향해가고 있다. 배의 망대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잠시 인생무상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내 준마가 뛰어다니고 노인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제주를 상상하면서, 이번 여정은 누선(樓船)을 타고 동정호에서 노니는 것보다 훨씬 장쾌한 유람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이 순조로운 항해를 임금의 은혜로 돌렸다. 또한 노쇠한 몸을 이끌고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주로 가는 것이니, 나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앞길의 풍파를 잠재워 주길 바랐다. 이런 기원 속에는 언제 풍파가 닥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있다. 그런데 석복은 순항하는 배 안에서 마음이 상당히 편한 상태였고, 속히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듯하였다. 이후 석복 일행이 탄 배는 소안도(蘇安島)를 향해갔고, 소안도에서 하루를 묵고 출발하였다. 이는 소안도(蘇安島) 관련 세 편의 시, 즉 <향소안도(向蘇安島)>, <숙소안도(宿蘇安島)>, <발소안도(發蘇安)>를 통해 알 수 있다.

동료 금오랑 늙어 인연 맺어	同舍金吾白首緣,
장풍 불 제 제주 배에 함께 올랐네.	長風共上濟州船.
이문 보낸 뒤로 어룡 기세 잠잠해지고	魚龍氣靜移文後,
돛을 단 앞으로 천지 끝 비었도다.	天地端空掛帆前.
장차 춘분 때는 남극노인성 보고	行見春分南極老,
한라산 신선에게 영약 구해 오리라.	乞來靈藥漢拿仙.
삼십산 두 노인의 즐거운 흥취를	三山二叟翱翔興,
돌아와 동청의 여덟 젊은이에게 자랑하리라.	歸託東廳八少年.

위의 칠언율시 제목은 <향소안도(向蘇安島)>이다. 석북은 춘분에 남극노인성을 보고, 한라산에 올라가 신선을 만나 영약을 구한다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즐거워하고, 이런 흥취를 한양으로 돌아와 예문관 팔한림(八翰林)¹²⁾에게 자랑할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일 뿐이었다. 석북 일행은 제주에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날 바로 육지로 출발해야 하는 일정이었다. 석북 일행은 소안도를 출발하여 백도(白道) 섬에 잠시 들렀다가 이후 근해(近海)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큰 바다를 향해 갔다.

탐라 만 리 길	耽羅萬里行,
왕명 받고 가는 두 서생.	王命兩書生.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 피하고	誓海魚龍遁,
배에 오르니 고각 소리 울리네.	登舟鼓角鳴.
돛대에 기대 남북을 분간하고	倚檣分子午,
해를 보고 날씨 점친다오.	看日卜陰晴.
백도와 청산 밖이	白道靑山外,
망망한들 더는 놀라지 않으리라.	茫然不復驚.

12) 원시(原詩)에서 동청의 여덟 젊은이[東廳八少年]는 예문관의 팔한림(八翰林)을 가리킨다. 예문관의 관료는 정7품 봉교(奉敎) 2명, 정8품 대교(待敎) 2명, 정9품 검열(檢閱) 4명으로 모두 8명인데, 이들을 팔한림(八翰林)이라 일컬었다. 한편 당시 석북이 근무했던 의금부는 서청(西廳)이라 일컬었다.

위의 오언율시 제목은 <출백도(出白道)>이다. 대해(大海)로 향하면서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간하고, 해를 보며 날씨를 예측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해에 임하는 석복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한 조각 나뭇잎에 견주었던 의기소침함은 찾아볼 수 없다. 며칠 사이 바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석복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칠언절구인 <지반양 망한라산(至半洋望漢拏山)>에서는 바다 한복판에서 남쪽 멀리 구름 밖으로 솟아있는 한라산을 바라본 감회를 덩뎁히 서술하고 있다. 석복은 한라산을 보면서 조금만 가면 제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만 리 세찬 바람 누선에 부는데	長風萬里送樓船,
바다 밖 명산 보는 것 숙연 때문이라네.	海外名山也宿緣.
돛대 앞에 해와 달 솟는 것만 보이니	但見帆前生日月,
천하에 신선 있음을 이제야 알겠네.	始知天下有神仙.
산호 자란 물가 낚시터엔 붉은 열매 많고	珊瑚釣渚多紅實,
굴과 유자 심긴 인가엔 온통 푸른 이내라네.	橘柚人家盡綠烟.
사자는 이번 걸음에 무엇 얻을까	使者今行何所得,
「원유편」 같은 문장 가득 실어 오리라.	文章滿載遠游篇.

위의 칠언율시 제목은 <대양주중(大洋舟中)>이다. 제목 그대로 큰 바다의 배 안에서 읊조린 시이다. 날씨가 쾌청하여 바다 밖에서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전생(前生)에 한라산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긴다. 또한 해와 달이 솟아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의 신비로움을 느끼면서 신선의 존재를 한 번 생각해 보았다. 배가 점점 제주에 다가서자 석복은 푸르스름한 이내 속에서 인가(人家)의 굴과 유자를 발견하였는데, 그 순간 마음속으로 제주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 안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안도감이 시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굴원이 신선과 함께 천지 사방을 두루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원유편(遠游篇)> 같은 작품을 많이 지어 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것도 일정 때문에 다만 희망 사항일 뿐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발언이었다. 석복은 제주에 점점 가까워지자 영혼이 한껏 자유로워지고, 자신이 상상해 온 제주에 대한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이는 비바람을 만나지 않고 순항하여 무사히 항해하였기 때문이다.

석복은 제주로 떠나기 전날 밤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항해(航海)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초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임금과 나라의 위령(威靈)에 힘입어 항해가 무사하길 기원하였다. 그런데 제주로 향하는 동안에 날씨가 화창하고 항해에도 적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3. 제주에 머물던 40여 일 동안

석복 일행은 1월 26일 제주에 도착했지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나라일 때문에 여로(旅勞)를 풀 겨를도 없이 다음 날인 27일에 순무어사(巡撫御史)와 함께 전후로 배를 띄워 육지로 향하였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갑자기 배에 물이 새어 바닷물이 세차게 들어오므로 급히 배를 돌려 다시 출발지인 제주로 돌아와 배를 수리하였다.¹³⁾ 이날 저물녘에 또 출발하여 한밤중에 7백 리를 떠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맹렬한 폭풍을 만나 결국 표류하며 서쪽으로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제주로 돌아와 정박하였다.¹⁴⁾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두 네 차례 배를 탔으나, 번번이 거꾸로 부는 바람을 만나 다시 제주로 돌아와 정박하여 전후로 관아에 묵은 것이 대략 45일이었다.¹⁵⁾ 석복 일행은 폭풍이라는 자연재해를 만나 40여 일 동안이나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기간에 지은 시들을 살펴보면, 크게 폭풍을 만나기 이전에 지은 시와 이후에 지은 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기 이전에 지은 작품은

13) 其明日, 同巡撫御史, 放船相先後, 到半洋, 忽船漏水大入, 急還棹, 修補。(『耽羅錄』「自序」)

14) 是日黃昏, 又發, 夜半浮七百里, 中洋遇颶, 果漂而西, 幸回泊濟州。(『耽羅錄』「自序」)

15) 自是二月十九日三月初一日, 凡四發船, 輒遇風回泊, 前後留館, 蓋四十五日。(『耽羅錄』「自序」)

몇 편밖에 안 된다.¹⁶⁾ 반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지은 대부분의 작품은 폭풍을 만난 이후에 지은 것들¹⁷⁾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제주에 머물게 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석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였다. 왕명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는 다급함과 폭풍으로 인해 육지와 단절된 섬 안에 갇혀있어야만 하는 답답함 사이에서 석복은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이 때문에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폭풍을 만난 이후부터 제주를 떠나기 직전까지 석복의 심리 상태를 이 기간에 지어진 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남쪽 바다, 순풍 기다리는 나그네	南溟守風客,
마치 축융의 노여움 산 듯하네.	如被祝融嗔.
높은 물결 천리에 이어졌고	高浪連千里,
외론 배 스무날이나 매여 있네.	孤舟繫兩旬.
감히 다급한 왕명 잊었겠는가	敢忘王命急,
오직 성조의 인자함만 믿는다네.	惟恃聖朝仁.
촛불 사위어도 잠들지 못하고	殘燭難成睡,
그저 촛불 바라보다 매양 새벽 이른다네.	相看每到晨.

위의 오언율시 제목은 <조구회박 체병삼순 민득일률(遭颶回泊 滯病三旬 憫得一律)>¹⁸⁾이고, 2편 중에 첫 번째 작품이다. 육지를 향해 출항(出港)했다가 폭풍을 만나 제주 항구로 돌아와 정박한 뒤 병 때문에 30일을 체류하다 보니 기분이 울적하여 율시 한 수를 지었다.¹⁹⁾ 파도가 높아 20일이나 배가 출항하

16) 제주에 들어와서 폭풍을 만나기 이전에 지은 시들은 다음과 같다. <입항망담라(入港望耽羅)>, <입도(入島)>, <입방영(入防營)>, <하포(下浦)>, <망한라산오체(望漢拿山吳體)>, <유관(留館)>이다. 그리고 <유관> 시에는 “이상은 폭풍을 만나기 이전에 지었다.[以上 遭颶以前作]”라는 주(註)가 달려 있다.

17) 폭풍을 만난 이후부터 제주를 떠나기 전까지의 작품은 모두 59편이다.

18) 신석초가 번역한 ‘석복시집’에는 위의 시 제목이 <조구회박(遭颶回泊)>으로 되어 있다.([石北詩集·紫霞詩集], 『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籍, 1973년, 182면 참조)

19) 『담라록(耽羅錄)』 「자서(自序)」에서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모두 네 차례 배를 탔으

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염없이 순풍을 기다리는 석북 일행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석북은 속히 왕명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임금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 시름에 잠겨 촛불이 다 타들어 갈 때까지도 잠들지 못하고 그저 촛불만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종종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홀연 바람 분다는 말 듣고 서둘러 배 출발시켰는데	忽聞風信放船催,
바람이 앞바다 이르러 또 거꾸로 불어왔다네.	風到前洋又逆來.
풍백은 나랏일 급한 줄 몰라	風伯不知王事急,
사람 희롱하며 세 번이나 망양대에 배 머물게 하였네.	戲人三泊望洋臺.

위의 시 제목은 <이월십구일 제삼발회박 민음(二月十九日 第三發回泊 閔吟)>²⁰⁾이다. 2월 19일 세 번째 출항했다가 돌아와 배를 정박시키고 시름겨워 읊조린 칠언절구이다. 석북 일행이 후풍관(候風館)에서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순풍을 기다리다가 바람이 분다는 말을 듣자마자 쏘살같이 움직여 출항하려는 장면이 떠오른다. 하지만 바람이 제주 앞바다에 이르러 거꾸로 불자 실망하며 주저앉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 없자 애꿎게 풍백(風伯)이 인간사를 외면하고 인간을 희롱한다고 원망하였다. 왕명을 받은 신하로서 속히 복명

나, 번번이 바람을 만나 돌아와 정박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제주에 1월 26일에 도착하였고, 위의 시 제목에서 체류한 지 30일이라 하였으니, 석북은 이 시를 읊려 2월 27일이나 28일에 지었을 것이다. 2월 말에 이 시가 지어졌다면, 이후에 <이월십구일 제삼발회박 민음(二月十九日 第三發回泊 閔吟)>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으니, 시간 순서상으로 맞지 않는다. 또한 제목의 ‘삼순(三旬)’을 함련(韻聯)의 ‘양순(兩旬)’과의 연관 선상에서 ‘이순(二旬)’의 오류로 본다면, 시를 지은 날은 2월 17일 즈음이고, 제목에 있는 그대로 ‘삼순(三旬)’으로 본다면 시를 지은 날은 2월 27일이나 28일이 된다. 그런데 이후의 시들 가운데 <이월십구일 제삼발회박 민음(二月十九日 第三發回泊 閔吟)>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으니, 제목의 ‘삼순(三旬)’은 ‘이순(二旬)’의 오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 신석초가 번역한 ‘석북시집’에는 <망양대(望洋臺)>로 되어 있다. (『石北詩集·紫霞詩集』, 『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籍, 1973, 184면 참조)

(復命)하고자 하는 석복의 마음과 행동이 행간에서 느껴진다.

정월에 떠난 사람 2월 중순인데	正月行人二月中,
돌아갈 배 한라산 동쪽에 세 번이나 정박했네.	歸舟三泊漢拿東.
천문은 북극과 남극으로 나뉘었고	天文北極分南極,
바다 기운은 아침 바람이 저녁 바람으로 바뀌었네.	海氣朝風轉夕風.
외딴섬 생사의 소식 절로 막혔으나	孤島死生書自隔,
이 몸 충효하는 도리 어찌 끝이 있으리오.	一身忠孝道何窮.
영주산 신선이 만약 보내준다면	瀛洲仙子如相送,
연잎 타고도 큰 바다 한 길로 통하리라.	蓮葉滄溟一路通.

위의 칠언율시 제목은 <체관무료 약축운제차 엄득일자 일부오칠각일률 배민견회(滯館無聊 約逐韻第次 拈得一字 日賦五七各一律 排悶遣懷)>로 모두 10편인데, 그중에 첫 번째 시이다. 2월 19일 세 번째 출항을 실패한 후 관사에 머물렀는데, 무료하여 운(韻)의 차례에 따라 일행과 시를 짓기로 약속하고는 운자(韻字) 하나씩 뽑아 날마다 5언과 7언으로 각각 율시 한 수씩 지어 번민을 털어 내고 회포를 풀었다.

아침 바람이 잔잔하고 부드럽다면 저녁 바람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거칠고 강하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달라지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 속에서 제주와 육지를 이어주는 배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고, 제주는 더더욱 외부와 차단된 절해의 외딴섬이 되어버렸다. 때문에 육지의 소식은 완벽히 끊어졌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1월 27일 낮에 앞뒤로 배를 타고 함께 출항했던 순무어사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어 마음이 갑갑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절해고도에 갇혀있어도 임금을 향한 충정 어린 마음과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한라산의 신선이 이런 마음을 장하게 여겨 그神通력을 발휘하여 바닷길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석복은 한라산 신선의 도움으로 순풍이 불어 자신의 일행이 조각배를 타고도 육지를 향해 일사천리로 가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울적한 심사를 달래 보기도 하였다.

우주 안의 일개 나약한 존재인 인간은 자연의 불가항력적 위세에 꼼짝할 수 없다. 축융의 분노도 풍백의 기룡도 어찌할 수 없다. 석북은 배를 정박해 둔 곳에서 행해지는 굿판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귀 기울이고,²¹⁾ 순풍이 불게 해달라고 새벽에 해신(海神)에게 제사 지내는 광경²²⁾과 출항을 앞둔 장사꾼이 소를 바쳐 수신(水神)에게 제사 지내는 광경²³⁾을 목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유교 사회의 일원이었던 석북은 이런 샤머니즘적 행위들을 묵묵히 지켜볼 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맹렬한 폭풍을 겪어 본 석북이었기에 이런 행위를 무조건 비난하고 배척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시 바닷길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음을 석북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석북 또한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쌀알로 순풍이 불어올 것을 짐쳐 보기도 하고,²⁴⁾ 때때로 병문안 오는 방영(防營)의 장교에게 언제 배 타고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무당에게 짐쳐보게 시키기도 하며,²⁵⁾ 출항하는 날 이른 새벽 배 안에서 향을 피워 용왕에게 제사 지내기도 하였다.²⁶⁾

등불 앞에 있으니 만 리나 떠난 듯하여	燈前如萬里,
고향 생각에 정신이 아득하네.	故國使人迷.
기운 쌓인 별들 하늘 위 떠 있고	積氣星浮上,
중원은 물이 다한 서쪽이라네.	中原水盡西.
장기 먼 이내 속 수루의 화각 소리 구슬프고	瘴烟悲戍角,
봄날 대밭엔 배 위의 닭 울음소리 들리네.	春竹聽船鷄.
이역의 풍토 겪은 뒤라	風土殊方後,
괜한 시름에 밤마다 시를 짓네.	閑愁夜夜題.

21) 繫舟聞賽鼓(〈滯館無聊 約逐韻第次 拈得一字 日賦五七各一律 排悶遣懷〉 2수 가운데 두 번째 시의 頸聯).

22) 祈風晨祭海(〈上弦〉 9수 가운데 아홉 번째 시의 領聯).

23) 估客沉牛祭水神(〈望京〉의 領聯).

24) 擲米徒煩下浦占(〈上弦〉 9수 가운데 여덟 번째 시의 頸聯).

25) 時來問疾防營將 舟楫歸期卜老巫(〈感吟〉 2수 가운데 첫 번째 시의 尾聯).

26) 船上三更一炷香 滿天星月祭龍王(〈三月十三日祭海〉 시의 1구와 2구).

위의 시는 앞의 10편의 시 가운데 여덟 번째 시이다. 밤이 되면 사방이 고요하여 파도 소리만 들리는 관소에서 우두커니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웠다.²⁷⁾ 이에 수루(戍樓)에서 들려오는 빨피리 소리도 구슬프게 느껴졌다. 봄날인데도 비바람이 심해 출항하지 못하고 대밭에 묶여있는 배들, 그리고 닭은 그 위에 올라가 시끄럽게 울어대었다. 닭이 울어대던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속에 쌓여만 가는 근심과 걱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을 토닥이면서 밤마다 울음을 삼키고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읊조리는 석복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첫 번째 시)

배편 남쪽으로 열림 또한 때가 있어	舟楫南通亦有時,
북쪽 소식 비로소 듣게 되었네.	北方消息始聞之
탐문하는 문서 삼도에 두루 보냈고	偵探文書三道遍,
생사 아득하여 여섯 집안 슬퍼했다지.	蒼茫生死六家悲.
외론 신하 다행히 고래 밥 되는 것 면했는데	孤臣幸免長鯨食,
고향에는 누굴 통해 소식 전하라.	故國誰憑白鴈知.
타향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 관원	辛苦異鄉同館伴,
일시에 눈물 뿌리며 한양 쪽 바라보네.	一時揮淚望京師.

(두 번째 시)

뜻밖에 한양 소식 듣고	不意聞京信,
배 맞이하니 눈물 왈각 쏟아지네.	迎船淚已催.
남두성에서 객으로 머물러 있는데	斗南留客在,
조정에서 내려온 사람 있네.	天上有人來.
지나온 여정에 혼이 여전히 두려워하는데	經歷魂猶恐,
뜯소문으로 다시 슬퍼진다네.	流傳事更哀.
어이하면 날개 돌게 하여	何緣生羽翼,

27) 제주에 있는 동안 석복이 고향, 즉 한양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여러 시편에 드러나 있다. 즉 <망경(望京)>, <이월회일 북선시통 문경신, 일행엄읍(二月晦日 北船始通 聞京信 一行掩泣)>, <감음(感吟)>, <청명(清明)>, <한식(寒食)>이다.

만 리 길 한 번 날았다가 돌아올까.

萬里一飛回。

위의 오언율시 제목은 <이월회일 북선시통 문경신 일행엄읍(二月晦日 北船始通 聞京信 一行掩泣)>²⁸⁾으로, 2편이다. 2월 그믐날[마지막 날]에 육지의 배편이 비로소 남쪽으로 열려 한양 소식을 듣게 되자, 석북 일행은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동안 조정에서는 석북 일행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삼남(三南) 지방에 공문서를 보내 탐문하였고, 석북 일행의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 비통해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석북은 출항 여정(旅程)에서 겪은 고난이 순간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떠오르자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석북 일행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거짓 소문이 돈다는 말을 들으니, 고향의 부모 형제와 가족들이 이 말을 듣고 참담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슬퍼하였다. 석북은 자신의 몸에 날개가 돌아 새처럼 훨훨 날아 멀리 있는 고향에 가서 자신이 살아있다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후 3월 6일 제주 장교²⁹⁾가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와서 석북이 제주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자식들이 들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³⁰⁾ 이에 석북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삼월 삼진날 제주의 촌락에는
비바람 쌀쌀하게 또 한 번 몰아치네.
남방엔 풀 밟는 옛 풍속 없는데
꽃 보자 한양의 이름난 원정 떠오르네.
한적한 어촌엔 관가 주방도 초라하고

三月三日濟州村,
風雨淒淒又一番。
踏草蠻方無舊俗,
看花京國憶名園。
蕭條龍戶宮廚薄,

28) 신석초가 번역한 ‘석북시집’에는 <문경신(聞京信)>으로 되어 있다. 『石北詩集·紫霞詩集』, 『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齋, 1973, 185면 참조.)

29) 이 제주 장교는 1월 27일에 순무어사와 함께 폭풍을 뚫고 육지에 당도했던 일행 중 한 명인 듯하다.

30) <삼월초육일 제주장교자경래 전아배득회박소식(三月初六日 濟州將校自京來 傳兒輩得回泊消息)>의 첫 번째 시 “回泊天南後, 兒聞近信不. 兒聞近信不, 吾在仲宣樓. 汝輩能收淚, 高堂或解憂. 艱難雖不死, 忠孝已全羞.”

괴상히 생긴 풍인 바다 기운에 어둑하네. 慘儻楓人海氣昏.
 좋은 절기 왔어도 풍광 다른데 佳節縱來雲物異,
 괴로움에 잠자려고 종일토록 겹문 닫아걸었네. 惱眠終日掩重門.

위의 시 제목은 <삼월삼일(三月三日)>이다. 이날은 삼짇날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말이 있고, 봄의 시작을 알린다. 이날 답청(踏靑)이라 하여 들판에 나가 새 풀을 밟으면서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였다. 또한 꽃놀이와 화전놀이를 즐겼다. 하지만 삼짇날 석복 일행이 머물던 제주 마을에는 비바람이 불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속에서도 어여쁘게 핀 봄꽃을 보자 석복은 문득 한양을 생각하였다. 자신이 한양에 있을 때 가보았던 유명한 원정(園庭)에 피어있던 꽃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자신의 현실은 한적하고 쓸쓸한 외딴섬에 기약 없이 간혀있다. 석복은 이런 자신을 병든 유배객 같다³¹⁾고도 하였다. 그래서 봄별 따스한 계절이 찾아왔어도 수심이 가너린 봄풀 따라 일어나기도 하고,³²⁾ 고향의 봄 풍광과 사뭇 다른 제주의 봄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에 대낮인데도 온종일 중문을 닫고 잠을 자려 하였다. 이렇게 낮잠을 청하는 이유는 밤새도록 시름에 잠겨서 못 잔 잠을 보충하려는 이유도 있고, 그동안의 여정에서 쌓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석복 스스로도 왕명을 받들어 분주히 돌아다녀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여겼다.³³⁾ 한 해가 지나도록 습증(濕症)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남쪽 섬 바닷가의 장기(瘴氣)와 이내[질은 안개] 때문인지 제주에 와서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³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춘분일(春分日)이 생일이었는데, 석복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제주 기생 녹색(綠壁)이 감귤을 가지고 문병(問病) 오자, 시를 지어주어 그녀에게 사례(謝禮)³⁵⁾하기도 하였다.

31) 孤舟一病官如羸(<上弦>의 두 번째 시의 頸聯).

32) 春日愁隨細草生(<上弦>의 두 번째 시의 首聯).

33) 吾二人者, 俱過五六十歲, 衰罷多疾, 不任驅馳(『耽羅錄』「自序」 중에서)

34) 苦濕經年病, 南來更十分.<文字> 시 중의 尾聯).

석북은 애초에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제주에 와서 악화되어 봄날이 반이나 지나는 동안에 얼굴이 핏색해지고,³⁵⁾ 귀밑머리가 날마다 희어진다³⁷⁾고 토로(吐露)하였다. 또한 몸이 병들어 괴로운 것을 누구도 가엾게 여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³⁸⁾ 석북은 제주에 와서 한층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속상해하며 불로장생의 선초(仙草)인 금광초(金光草)를 캐어 먹고 늙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³⁹⁾

삼진날 며칠 후 부슬비 내리는 한식(寒食)날에는 고향의 선영(先塋)을 생각하며 성묘(省墓)에 참석하지 못해 상심(傷心)하면서 한강 다리를 건너 성묘 가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기도 하였다. 이후에 저물녘 다급히 울어대는 까마귀 소리를 듣고, 자욱한 안개 속에 출렁이는 노골(盧橋)을 바라보면서 한양 도성(都城)에 핀 꽃과 버들을 보지 못해 서글퍼하였다. 비 내리는 한식날에 쓸쓸히 타향에 있으니 암울하여 뉘이 나가는 듯하다고도 하였다.⁴⁰⁾

돌밭이라 해마다 섬 백성들 굶주리니	石田頻歲海民饑,
눈 가득 처량한 광경에 풍광조차 서글프네.	滿目淒涼物色悲.
예부터 어엿만 있고 장이 서지 않는 고장인데	從古魚塩無市國,
지금은 비바람에 배편마저 끊어진 때라네.	如今風雨絕船時.
털북숭이 진줄은 관아 주방의 고기 훔치고	長毛鎖卒偷廚肉,
누런 얼굴의 섬 아낙은 나무껍질 벗긴다네.	黃面蕃姑剝樹皮.
나 또한 임금의 신하로 이 땅에 온 터라	我亦王人來此地,
조석 때마다 절로 손가락 멈춰지네.	每當朝夕自停匙.

세 고을에서 세 번 돌아가며 공궤하지만	三縣三周供,
-----------------------	--------

35) <初度日 值春分 州妓綠鬢問病餉橋 以詩謝贈>

36) 一半春來減舊顏(<清明> 시의 尾聯).

37) 朝朝客鬢皤(<三月初六日 濟州將校自京來 傳兒輩得回泊消息>의 네 번째 시의 尾聯).

38) 身病苦誰憐(<三月初六日 濟州將校自京來 傳兒輩得回泊消息>의 세 번째 시의 頸聯).

39) 金光如可採, 白髮莫相催(<又得哉字> 시의 尾聯).

40) 耽羅寒食雨蕭蕭, 北舶南船盡濕橈. 故國松楸迷海島, 幾家車馬上河橋. 蠻山日暮鳥啼急, 盧橋烟深翠列飄. 悵悵帝城花柳節, 異鄉寥落暗魂銷(<寒食>).

흉년이라 오래 머문 손님 어려워하네.	荒年久客難.
도성에서 자주 조서 내려오고	日邊頻有詔,
바다 밖에도 관원 없지 않은데,	海外不無官.
풀뿌리 먹는 백성들 길에서 울부짖고	草食民啼路,
누더기 걸친 아전들 밥상 예워싸네.	鶉衣吏繞盤.
푸른 적삼 입은 가난한 사자	靑衫貧使者,
무슨 수로 기한을 구제하리오.	何術救饑寒.

위의 칠언율시 제목은 <민황(憫荒)>이고, 오언율시 제목은 <우민황(又憫荒)>이다. 각각 3월 삼짇날 전후로 지어진 작품으로, 흉년이 든 당시 제주의 광경과 이를 근심하는 석북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제주는 본디 쌀농사를 지을 수 없어 육지에서 쌀을 이송해 와야 했다. 그래서 쌀이 항상 부족하였는데, 당시는 비바람이 한 달 이상 지속되어 육지를 오가는 배편이 끊겼고, 보리 수확은 아직 이른 춘궁기였다. 제주 백성들은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였고, 심지어 진영(鎭營)의 병졸과 아전들조차 음식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런 제주의 현실 속에서 석북은 조석(朝夕)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마음 편히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예상치 못한 객의 신분으로 오래 머물러 있는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석북이 비록 목민관으로 부임해 온 것이 아니라 왕명을 받고 임시로 파견된 관리였지만, 동일한 임금의 신하로서 애민의식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실상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난한 사신으로서 제주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할 수 없어 마음이 착잡하였다. 석북은 불가피하게 제주에 머무는 동안 몸이 아파 예민해지고, 왕명이 지체되고 향수병이 깊어져 시름겨워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있지 않았다.

끝으로 석북이 제주에 머물면서 제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한양에 돌아가서는 탐라를 꿈꾸지 않으리라.”⁴¹⁾는 구절에서는 제주에 대한 미련이 털끝만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제주에 관련된 것들은 꿈

41) 歸不夢耽羅<三月初六日 濟州將校自京來 傳兒得得回白消息>의 네 번째 시 중의 頸聯.

에서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단호함이 느껴진다. 노년에 접어든 나이로 풍랑을 만나 생사를 넘나들었고, 유배객처럼 강제로 갇혀있던 공간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단약 때문에 울무 구할 것 없고,⁴²⁾ 이미 제주 사투리에 능하니 여인에게 배웠다네.”⁴³⁾라는 구절에서는 제주의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면서 제주 습속을 알아가고, 제주 사투리를 배우면서 제주민과 소통하는 석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처음 왔을 땐 물색이 온통 변방의 거친 습속이었지만 인정 깃든 곳이면 어딘들 고향 아니리오.”⁴⁴⁾라는 구절에서는 낯선 타향에서 여러모로 울적했지만, 마음을 붙여보려고 애쓰는 석북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 지은 “원유시(遠遊詩) 백 수를 이 땅의 누구에게 들려주겠는가.”⁴⁵⁾라는 한숨 섞인 말을 통해 제주 지역에 자신의 시를 읽고 품평해 줄 시우(詩友), 즉 정범조·목만중·체제공 같은 이들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4. 제주를 떠나 한양 도착까지

석북 일행은 3월 13일 별빛과 달빛이 하늘에 가득한 삼경(三更)에 배 위에서 향을 피워 놓고 용왕에게 제사 지내 안전 운항을 기원하였다. 신령이 감응해서인지 제주 바다는 잠잠하였다.⁴⁶⁾ 그리고 아침이 되자 육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42) 후한(後漢) 때에 복파장군(伏波將軍) 마원(馬援)이 교지(交趾)를 정벌할 때 울무를 복용하여 남방의 장기(瘴氣)를 이겨냈다고 한다.(『後漢書』 <馬援列傳> 참고) 여기서는 석북이 제주에 있을 때 제주의 약초를 복용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울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43) 不爲仙方求薏苡，已能蠻語學嫻嫻。(〈感吟〉의 첫 번째 시 중의 頸聯).

44) 初來物色渾荒俗，何處人情不故鄉。(〈寒食雨中〉의 세 번째 시 중의 頸聯).

45) 遠遊詩百首，茲土遣誰聽。(〈上弦〉의 세 번째 시 중의 尾聯).

46) 船上三更一炷香，滿天星月祭龍王。依係想得神靈意，雙燭花前海不揚。(〈三月十三日祭海〉)

북 치고 바라 올릴 제 아침 햇살 붉은데	打鼓鳴羅朝日紅,
배에 오르니 벌써 온갖 시름 사라짐 느껴지네.	登舟已覺萬愁空.
마음은 북쪽의 낙수와 송산에 있는 듯하고	心如洛水嵩山北,
몸은 비린 안개와 장무 속 벗어났다네.	身出腥烟瘴霧中.
삼월이라 천리 바다에 파도 높지 않으니	三月不高千里海,
잠시나마 한 돛에 부는 순풍만 믿는다네.	片時惟信一帆風.
타루에선 멀리서도 알겠네 구름 피어나는 곳	舵樓遙識雲生處,
여서도 산봉우리 앞과 보길도 동쪽임을.	餘鼠峰前寶吉東.

위의 칠언율시 제목은 <발선(發船)>으로 2편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붉은 햇살 퍼지는 아침에 석북 일행은 배웅받으며 제주를 떠나갔다. 석북은 배에 올라서자마자 온갖 근심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고, 바닷가의 비릿한 냄새와 자욱한 안개, 그리고 장기(瘴氣) 속을 벗어나니 마음은 이미 한양에 도착한 듯한 기분이었다. 파도가 잠잠한 3월의 바다를 순항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육지로 향하고 싶은 마음에, 아직 구름 속에 숨어 보이지 않는 육지 가까이 있는 섬들을 호명해 보기도 하였다.

동풍 부는 추자도 바닷물 기름 같은데	東風楸子水如油,
오늘 우리의 발길 제주 떠났다오.	今日吾行去濟州.
고향 가기 위해 돛배 하나 다시 빌렸으니	更借一帆爲故國,
외론 배에 있어도 만사가 다 홀가분하네.	渾輕萬事在孤舟.
푸른 산 하얀 돌 보고 있으니 비로소 기쁘네	靑山白石看初喜,
흙빛 땅 누런 구름 말하자니 또한 수심이네.	地黑雲黃說亦愁.
뱃전 기대 소리 높여 노래하며 그저 사방 바라보니	倚棹高歌聊四望,
백 년 덧없는 인생 모두 유유하다.	百年浮世攄悠悠.

위의 칠언율시 제목은 <추자주중(楸子舟中)>이다. 추자도 앞바다는 동풍이 불어서인지 마치 기름칠을 해놓은 듯하여 석북 일행의 배가 순조롭게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다. 석북은 자신이 제주를 떠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홀로

항해하는 외로운 배에 있어도 이리저리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흥기분함을 느꼈다. 또한 시야에 들어오는 추자도의 푸른 산과 하얀 조약돌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다. 이제 제주의 검은빛 땅과 누르스름한 구름은 생각만 해도 울적하였다. 그저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백 년 인생도 출렁이는 바다처럼 덧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삼월에 바닷길 비로소 열려	三月海初開,
가벼운 배 타고 사명 받들던 이들 돌아가네.	輕舟奉使回。
서불이 돌아갔다는 말 아직 듣지 못했지만	未聞徐市返,
여전히 월상에서 오는 것 보인다네.	猶見粵裳來。
북쪽 땅 이제 가까우니	北地于今近,
남쪽으로 온 것 더 이상 슬프지 않네.	南征不復哀。
세찬 바람 비로소 다정하게도	長風始多意,
재촉하듯 불어 나를 보내준다네.	吹送若相催。

위의 오언율시 제목은 <추자석박(楸子夕泊)>으로 5편인데, 그중에 다섯 번째 시이다. 멀리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석북 일행이 탄 배는 해 질 무렵 추자도에 잠시 정박하였다. 점점 육지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자 석북은 남쪽으로 사신 갔던 일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는 제주에서 있었던 어두운 기억들을 떨쳐버리고 제주에서의 좋은 추억만 남겨 놓고 싶은 석북의 무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바야흐로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느끼면서 이 바람이 석북 일행의 배를 육지로 더 빨리 보내줄 것이라 믿었다. 또한 아주 옛날 교지국(交趾國 베트남) 남쪽에 있던 월상국(粵裳國)에서 바다가 잠잠해지자 주(周)나라 성왕을 알현했던 것처럼 석북도 순항하여 무사히 한양까지 이르러 임금을 뵈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돌아가는 배 사흘간 구름 낀 바다에서 묵었는데	歸舟三宿海雲間,
천리 길 하루 만에 돌아온다 누가 말했던가.	千里誰云一日還。

풍랑이 장난칠까 다시 두려우니	復恐風濤作戲劇,
풍토가 용모 해침 어찌 논하리오.	何論水土損容顏.
남쪽 표류할 제 다행히 유구국으로 가지 않아	南漂幸不流球國,
북쪽 물 건너 다시 일월도 산 지나가네.	北渡重經日月山.
완도가 까마귀 같다가 점점 말 같아지니	莞島如鳥漸如馬,
사공은 비 오기 전에 서둘러 노 젓는다네.	舩工未雨急躋攀.

위의 칠언율시 제목은 <일월도주중(日月島舟中)>이다. 이를 전 즈음에 석북 일행은 추자도에 저물녘 정박했다가 깊은 밤에 배를 띄워 바람 일어나는 바다를 달빛 받으며 떠갔는데,⁴⁷⁾ 어느 지점에서 달이 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닻을 내리고 바다 한가운데 머물렀다. 제주 바다에서 풍랑을 겪었던 석북 일행은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와 밤을 지새웠다.⁴⁸⁾

제주에서 추자도까지는 순항했지만, 추자도에서 육지로 향해 올 때는 구름 낀 바다에서 3일 간이나 머물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다. 석북은 또다시 바람이 높은 파도를 일으킬까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 일월도를 지나가자 까마귀 정도의 크기로 보였던 완도가 점점 말 정도의 크기로 보일 만큼 가까워졌다. 이에 사공은 비가 올까 염려하여 박차를 가해 노를 저었다. 이후 보길도에 정박하여 아침밥을 지어 먹었고, 윤선도가 은거했던 부용동(芙蓉洞)을 둘러보고 싶었다. 하지만 일정이 급하고 조수가 밀려온다는 말에 서둘러 배를 띄워 출발하였고,⁴⁹⁾ 해남의 달마산(達摩山)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드디어 육지에 도착하였다.⁵⁰⁾

47) 放船深夜大洋中, 放船深夜大洋中, <楸子夕泊>의 여섯 번째 시의 1구와 2구.

48) 月落烟多不可舟, 千尋碇子下中流, 風波共是經來客, 一夜無眠盡白頭(<下碇宿洋中>) 또한 『담라록』 「자서(自序)」에서는 “14일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 닻을 내리고 묵었다.[十四日無風 下碇宿洋中]”라고 하였다.

49) <조박보길도취반(朝泊寶吉島炊飯)> 시의 제목 옆에는 부용동(芙蓉洞)은 해옹(海翁)의 옛 은거지이다. 배에서 거리는 도보로 십 리인데, 일정이 급하여 두루 볼 틈이 없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芙蓉洞海翁舊隱距 船步十里 急不暇歷覽 故云]라는 주(註)가 달려 있다.

50) 3월 15일 밤에는 비를 무릅쓰고 육지에 올랐다.[十五日夜 冒雨登陸](『耽羅錄』 「自序」)

몸이 평지 올라 곧장 유성처럼 달려왔으니	身登平地即星馳,
사흘 길인데도 복명 지체될까 꺼려졌네.	三日猶嫌復命遲.
만 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 본토 돌아오니	萬死一生還故國,
종남산과 한강 예전과 같구나.	終南漢水似當時.
벗들 서로 다투어 풍파 겪은 일 물어보지만	故人爭問風波事,
어린 자식 오히려 눈물 흘리며 슬퍼하네.	穉子猶爲涕淚悲.
호서의 집 아버이 기대신 대문으로 고개 돌리니	回首西湖倚廬處,
북쪽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혹 듣고 알고 계실지.	北歸消息倘聞知.

위의 시 제목은 <도경(到京)>이다. 석북 일행은 최대한 빨리 한양으로 향하면서 복명이 지체될 것을 염려하였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석북은 변함없는 남산과 한강을 바라보며 자신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하였다. 벗들은 석북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물려들었다. 이들은 석북의 건강 상태를 염려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싶어 하였던 듯하다. 반면 어린 자식은 부친을 잃고 고아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나날들을 떠올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 시는 제주 여정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탐라록』에 굳이 수록하지 않아도 되는 작품이지만, 맨 끝부분에 수록해 놓았다. 이 시는 그동안 기복이 심하고 뒤엎혀 있던 석북의 감정을 편안하게 풀어주어 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파란만장했던 제주 여정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후 석북은 제주 여정에서 지은 시를 한 권의 시집으로 엮어냈다. 여기에 수록된 시들은 출항할 날을 기다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소일(消日)하는 바탕으로 삼으려 한 것이 많다. 하지만 바다 밖 풍토와 객지에서서의 곤궁한 상황을 충분히 살필 수 있고, 석북과 동료 이익(李翼), 서리(書吏) 박수희(朴壽喜) 세 사람이 생사와 우환을 함께한 것을 알 수 있다. 석북은 이들과 제주에서 동고동락한 일을 오래되어도 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기록해서 세 집안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호적으로 지내기를 바랐다.⁵¹⁾

5. 나오며

지금까지 석복 신광수의 『탐라록』을 통해 그의 제주 여정(旅程)과 심리 상태를 살펴보았다. 석복은 1764년(영조 40) 1월 16일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로서 일행과 함께 죄인을 호송하는 임무를 띠고 제주로 향하였고, 바다를 건너 1월 26일 제주에 도착하였다. 임무를 마치고 다음날 제주를 출발하였다가 폭풍우를 만났고, 이후에도 폭풍우 때문에 몇 번이나 출항에 실패하면서 40여 일 동안 제주에 체류하게 되었다.

『탐라록』 소재(所載)의 시들은 시간상으로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제주로 향해갈 때,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제주를 떠나 육지로 향하는 여정이다. 석복은 제주로 떠나기 전날 밤에 항해(航海)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초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임금과 나라의 위령(威靈)에 힘입어 순항(順航)하기를 기원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순풍이 풀어 순항하게 되면서 배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제주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상상하며 즐거워하였다. 반면 폭풍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많은 시를 지으면서 심란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무료함을 떨쳐버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들 시 속에는 석복의 다양한 모습, 즉 고향을 그리는 마음,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초월적인 힘에 의지해보려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가난한 백성에 대한 연민, 제주에 대한 이중적인 마음 등이 담겨있었다. 바람이 잠잠해지자 석복 일행은 3월 13일 아침에 제주를 출발하여 15일 밤 육지에 이르렀고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석복은 출발하는 배에 올라서자 온갖 근심이 사라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고, 추자도까지 순항하면서 세찬 바람도 다정하게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달이 지고 안개가 자욱하자 닻을 내리고 바다에 머물렀다. 풍랑을 겪어봤던 석복 일행은 또다시 두려움이

51) 其唱和諸詩，多率爾不經意，以資消日。要之海外風土羈旅困頓之狀，亦足以有徵。又有以見吾三人者之同其死生憂患，久而不可相忘也。遂各錄一通，令三家子孫，世講其好，此其識也。(『耽羅錄』「自序」)

밀러와 밤을 지새웠다. 구름 낀 바다에서 3일 간이나 머물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육지에 무사히 당도하여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하였다. 석북은 해남에 도착하자 비로소 안도하였고, 한양에 이르러서 복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제주 여정의 대단원을 마무리 지었다. 석북의 『탐라록』은 한 인간이 고난 전과 후에 느끼는 심리 상태를 담고 있는데, 두려움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마음을 추슬러 나갔는지 엿볼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석북의 『탐라록』을 그의 다른 시집들, 즉 『여강록(驪江錄)』·『서관록(西關錄)』 등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석북이 각기 다른 시공간 속에서 어떤 모습과 인식 태도를 드러내는지 살펴본다면, 그의 시 세계를 좀더 폭넓고 조망하고, 그의 모습이 좀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또한 석북이 주장한 작시 논리와 시론을 바탕으로 『탐라록』 소재 시들을 분석해 본다면, 18세기 한시사에서 『탐라록』의 위상도 가늠될 것이다. 한편 『탐라록』을 조선시대 여타 문인들이 지은 제주 관련 시들과 함께 연구해 본다면, 제주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다양한 인식 층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완역 『석북집』 소재 『탐라록』을 제공해 주신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의 『석북집』 번역팀에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신광수, 『耽羅錄』, 『石北集』 권7(한국문집총간 231).
- 김상헌 저, 홍기표 역, 『南槎錄』, 제주문화원, 2009.
- 신석초, 『石北詩集·紫霞詩集』, 『韓國名著大全集』, 大洋書籍, 1973.
- 부영근, 「石北 申光洙의 「耽羅錄」 考察」, 『영주어문』 8집, 영주어문학회, 2004.
- 박용만, 「申光洙의 「耽羅錄」에 나타난 제주에 대한 인식과 정서」, 『탐라문화』 66호, 탐라문화연구원, 2021.
- 윤경수, 「申石北의 『耽羅錄』 考」, 『成大文學』 23집,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4.

| Abstract |

A Study on Seokbuk(石北) Shin Gwang-su's
『Tamnarok(耽羅錄)』
- Focusing on the journey and Seokbuk's
psychological state

Yun, Se-soon

Jeju National Univ. Researcher

In this paper, I studied Seokbuk Shin Gwang-su's Jeju journey and the psychological state revealed during the journey through his 『Tamnarok』. On January 16, 1764, Seokbuk received a royal order and headed to Jeju with his party on a mission to capture criminals. They crossed the sea and arrived in Jeju on January 26.

He departed Jeju the day after completing his mission, but was caught in a storm and was forced to remain on the island for approximately 40 days. The poems included in 『Tamnarok』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chronology: those written on the way to Jeju, those written during his stay in Jeju, and those written during his journey from Jeju to the mainland.

The night before leaving for Jeju, Seokbuk appeared anxious and timid due to fear of sailing, and prayed for a smooth voyage with the help of the king and the country's divine energy. However, as the journey went smoothly, he found psychological stability and enjoyed imagining the things he wanted to do in Jeju.

Meanwhile, while he was forced to stay in Jeju due to the storm, he wrote many poems to soothe his depressed mind and shake off his boredom. In that poem, we can see various aspects of Seokbuk: his longing for his hometown, his weak side that tries to rely on a transcendent power, his suffering from illness, his compassion for the poor people, and his ambivalent feelings toward Jeju.

When the waves of the Jeju sea calmed down, Seokbuk and his party left Jeju on March 13th, reached land on the 15th, and arrived in Seoul three days later. As Seokbuk boarded the departing ship, he felt a sense of relief, as if all his worries had vanished. As he cruised to Chuja Island, he felt the strong winds soften. However, as the moon set and fog thickened during the voyage, he dropped anchor and remained at sea. Seokbuk and his party were so frightened by the storms they couldn't sleep. The weather was so bad that they had to stay at sea for three days, but fortunately, they overcame the crisis and arrived safely on land.

Through Seokbuk's 『Tamnarok』, we examined the psychological state of a person before and after suffering, and learned how he overcame fear and mental and physical pain to find peace of mind.

Key words : Seokbuk(石北), Shin Gwang-su(申光洙), 『Tamnarok(耽羅錄)』, on the way to Jeju, stay in Jeju, from Jeju to the mainland